복지시설 허브 '불교사회복지회관' 건립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2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25년 완공 목표 건립 추진
사회 약자 위한 공간 마련도
실천가 인재양성·관리도 집중
미래 전략 비전자문위 발족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이 2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 한해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조계종 산하 전국 1000여 개 복지시설을 지원·관리하는 허브역할을 할 '불교사회복지회관'이 건립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 이하 복지재단)은 2월 1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보리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불교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조계종단 및 불교 전반의 사회복지 핵심 축으로서 다양한 수업을 수행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재단은 '우리사회의 희망과 용기를 전하겠습니다'를 캐치프라이즈로 △불교사회복지회관 건립 △조직체계 정비 및 후원나눔사업 강화 △복지시설 운영체계화 및 '휴스테이' 강화 △국내외 소외이웃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대 △비전자문위원회 발족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종합 복지서비스를 펼칠 공간이 될 '불교사회복지회관'은 조계종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의 토지 일부를 임대, 약 810m² (254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토지 임대 계약이 완료되고 각종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3년 여름경 건립공사에 착수, 재단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 상반기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불교사회복지회관'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위한 공간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복지재단이 소외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실천을 대표하는 기관인만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쓰는 종단 대표단체인 사노위와 공간을 공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함이다.

보인 스님은 "범불교적 사회복지 발전의 거점 기관으로서 규모에 맞는 환경을 구축, 재단 지원 및 시설운영 관리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회관 건립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보다 멀리, 보다 높게 힘찬 도약을 하기 위해 체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튼튼하게 보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재단은 올해 전국 1000여 개의 산하시설과 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구본사 복지재단 설립도 적극 나선다. 복지재단은 법주사, 해인사, 화엄사 등 아직 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9개 교구본사를 지원, 설립을 독려하고 지역사회 내 불교사회복지 활성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재양성과 관리에도 집중한다. 미래세대에 걸맞는 불교사회복지 실천가 양성을 목표로 전국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정책 및 행정과 관련한 온라인과 대면 교육연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복지재단의 대표 사업인 난치병 어린이 지원사업은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난치병 치료비 지원 특화 사업을 전문단체들과 협력하고 홍보대사 신규 위촉, 최신 트렌드에 발맞춘 온라인 모금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자비나눔 이벤트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보인 스님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사회공헌사업을 지원하는 기업 및 재단 후원자, 민간 단체 등 후원 연계를 통해 자비나눔 활동 영역을 폭넓게 개발하겠다"면서 "특히 불교계 주요인사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불교 및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전자문위원회를 발족, 미래 전략 방향 제시와 후원의 다각적 분석 및 방향성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재단의 아젠다를 담아낸 '미션과 비전 실천과제'를 연중 발표, 복지재단의 정체성 확립과 종교계 및 사회복지계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동문기업 제품 쓰고 장학금 전달도

동국대 식공과 기업, 제품 유통
"동문기업 성장, 노후 준비 가능"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동문기업이 만든 우수한 제품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동식원은 1월 31일 인사동에 위치한 아트갤러리 예하도예에서 샵인샵 개원식을 가졌다. 앞으로 ㈜동식원은 예하도예의 한쪽 공간을 대여, 기업에서 유통하는 제품들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동식원은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동문들이 출자해 설립한 기업이다. 동문들이 만든 우수한 제품들을 유통, 판매한다. 예하도예에서 만나볼 수 있는 ㈜동식원의 제품은 홍삼제품,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 화장품, 고추장 등이다. ㈜동식원 측은 수요에 따라 점차적으로 판매 제품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동식원을 이끄는 이황 대표는 식품생명공학과 72학번이자 불교학생회 후원회장으로, 후배들을 위한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다. 수십 년 동안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진행해왔고, 이를 통해 동국대에 전달한 발전기금이 1억 원에 달한다. 또 재학생들과 네팔염소 보내기, 히말라야 쓰레기 소각로 설치 펀딩 등 여러 모금 활동을 주도했다.

이날 개원식에서 이황 대표는 ㈜동식원의 목표를 3가지로 설명했다. △제품 판매를 통한 동문기업 성장 △동국대 식품공학과 재학생 및 불교동아리(불킴) 장학금 △퇴임 동문들의 노후 준비 등이다.

이황 대표는 "동문기업 활성화가 재학생과 학교 발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동문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동식원과 활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예하도예(서울 종로구 인사동 12길 10)는 도자기 판매 갤러리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증을 통해 구매 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전법단 '풀뿌리 포교', 분야별 단장·지도법사 둬

2월 1일 대표자 회의서 개정 보고
범해 스님 "분야 전법 활성화" 당부
새해 계획 통해 특색있는 포교 천명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범해)이 2023년 각 분야 일선에서 전법포교에 앞장서는 전법단의 운영체제를 강화한다.

조계종 포교원은 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전법단 총재이자 포교원장인 범해 스님 주재 하에 대표자 회의를 열고 '조계종 전법단 운영·관리에 관한 령' 개정 보고 및 각 전법단 주요사업을 공유했다.

포교원은 '조계종 전법단 운영·관리에 관한 령' 개정을 통해 '분야별 전법단장' 신설과 지도법사 위촉 등을 명시했다.

그동안 조계종 전법단은 총재인 포교원장 스님 지도하에 전체를 총괄하는 전법단장 및 전법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법단 체제 정비와 함께 각 분야별 단장이 위촉되어 활동해 왔으며, 이에 따라 분야별 전법단장 및 지도법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활동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표자 회의에서 범해 스님은 "각 분야의 전법단장을 중심으로 불교적인 역할이 커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자. 전법단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법포교 활성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체육인전법단장 호산 스님(종무부장)은 "종단이 포교에 사활을 걸고 있다. 포교원의 전법단 운령관리령 개정을 통해 특색있는 전법단을 두고, 각 단장들이 포교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는 각 전법단의 새해 계획도 공유됐다.

경찰전법단(단장 지현)은 현장 중심 포교방향 제시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나선다. 경찰전법단은 전국 경찰불교회 출장간담회를 실시하고 온라인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선다.

청년대학생전법단(단장 무각)은 청년대학생 신행활동 지원과 신규 지도법사 위촉에 힘쓸 계획이다. 법령 개정을 통해 활동 근거가 마련된 만큼 2월부터 지도법사 현황조사 및 등록화 작업을 갖고 지도법사 간담회를 연다.

신도시전법단(단장 도봉)은 탄천 연등축제 지역축제화 및 복지관 협력 통한 포교 활성화를 진행한다.

병원전법단(단장 능지)은 불교임상지도자교육에 박차를 가하며, 교정교화전법단(단장 혜원)은 교정기관 사찰 연계 및 CMS후원사업을 진행한다.

장애인전법단(단장 도륜)은 지역별 장애인불자회 구성과 함께 10월 장애인 불자들의 해외 성지순례 또한 추진키로 했다.

노덕현 기자

스포츠 불자 경기력 강화비법은?

불자선수 총무원·포교원 신년하례서 조언 화제



"평소에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하세요. 마음을 비우면 스스로 갖춘 실력을 걸림 없이 펼칠 수 있습니다. 매일 5분씩이라도 잡념을 없애는 명상을 하길 추천합니다." -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우리 불교에서는 1등이라는 성적보다, 그 순간에 임하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성적도 따라 올겁니다." -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조계종 체육인전법단(단장 호산)이 2월 1일 국가대표선수촌법당 불자선수들과 총무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신년하례를 올린 자리에서 내려진 법문이 화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예방자리에서 불자선수들에게 "본인의 실력이 걸림이 없이 발휘가 되면 그것이 바로 여유라는 것으로 바뀐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언제 시간이 가는지도 몰랐던 것처럼 반대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시간이 느리게, '찰나'가 보이게 변화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훈련은 정말 힘들게, 치열하게 하지만 실제 경기에 들어갈 때 만큼은 이런 여유를 갖길 바란다"며 "매일 5분 10분씩이라도 잡념을 없애 명상을 꾸준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도 앞선 예방 자리에서 명상을 위한 향과 향로를 선물하며 명상수행을 당부했다. 범해 스님은 "우리 불교에서는 1등이라는 성적보다, 그 순간에 임하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명상을 통해 마음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성적도 따라 올 것"이라며 "선수들이 겪는 각종 스트레스와 경기전 긴장 해소에 특히 명상이 도움이 된다"며 향로를 전했다.

한편, 이날 신년하례에는 체육인전법단장 호산 스님을 비롯해 사무국장 정진 스님(선수촌법당 지도법사), 정정애 사무과장, 강채영·곽진영 양궁 국가대표, 손영희·김수현·신재경·한지안·김유신 역도 국가대표, 함관식 우슈 국가대표, 백준혁·박희준·정지영 카라테 국가대표, 이국주 카누 국가대표, 이준호 기계체조 국가대표, 문경애·김나연 선수촌 지도자가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국대 미래불자육성장학에 사찰 기부 잇달아

불국사, 1월 30일 1억 6천만원
연주암, 1월 25일 1천만원 기부




불국사(사진 왼쪽)와 연주암이 동국대 건학위에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금을 전달했다.

동국대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에 지역 유수 사찰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는 동국대 WISE캠퍼스에 1억 6000만원을 쾌척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1월 30일 동국대 WISE캠퍼스 백주년기념관 대강당과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 5층 힐링홀에서 '불국사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불국사는 동국대 건학위원회에 지역미래불자 육성장학 기금 1억 6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이는 WISE캠퍼스에 재학 중인 경주·포항·영덕·울진 출신 재학생 60명과 간호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재학생 60명 총 120명에게 각각 장학금 100만 원이 전달됐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동국대를 만들라는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스님의 원력으로 비롯된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이 오늘 수여식으로 31번째를 맞이했다"며 "장학생들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정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동국인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은 "이번 장학금 수여식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국사와 학생들과의 인연이 시작되는 날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악산 대표 고찰인 연주암(주지 탄문)은 동국대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1월 25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연주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연주암 주지 탄문 스님,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관악사 주지 탄무 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과천 지역 장학생 10명이 참석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연주암 장학생들은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연주암을 찾아 상담받고 심신을 다스리며 학업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주암 주지 탄문 스님은 "장학생들은 연주암을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힘들 때 찾아와서 의지하는 공간이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인문사회 부문 강화

교육원, 2023년 연수교육 개설
스마트 영상 제작 등 강좌 운영
일본, 라오스 순례 진행도 예정

조계종 승려연수교육이 시대에 맞는 교육을 위해 인문사회 분야를 강화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혜일)은 불기 2567(2023)년 승려연수교육을 개설·실시한다.

올해 강좌형 연수는 24개 강좌로 법계과정(6개), 사찰경영과정(3개), 선교율과정(4개), 인문·사회·문화 분야(11개)로 구분해 운영한다. 특히, 올해 연수교육은 스님들의 학습 욕구와 사회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문화 과정을 강화했다. 주요 강좌로는 △창의적 스마트 영상제작 실습 △정신의학과 불교 그리고 치유 △한국 전통 간화선과 현대인의 명상 △불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문쓰기 △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대승기신론 강해를 중심으로' △한국의 불교조각 △붓다와 뇌과학 △한국의 불교건축 등이 진행된다.

지난해 코로나 방역상황에 따라 운영하지 못했던 순례형 연수는 국내, 국외각 2개 과정 총 4개 과정을 개설했다. 국내 순례로는 경주 남산 불교문화 답사, 가야 불교문화 답사가 진행되며 해외는 일본 불교문화 순례, 라오스 불교문화 순례가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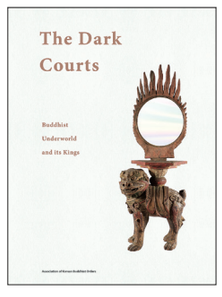
대부분의 연수교육은 대면으로 정상화됐으나, 국가 방역조치 상 고위험군이 많이 포함돼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올해도 중단키로 했다.

비대면 연수에만 적용해 오던 온라인 설문조사와 수료증 출력을 대면 연수 대상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온라인 학습시스템(교육원 연수 홈페이지, monkedu.buddhism.or.kr)를 통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신성민 기자

K-판타지 근원 '사후세계' 세계에 알린다

종단협, 한국불교 사후세계 소개
영문서 〈The Dark Courts〉 발간
16번째 한국 불교소개 외국어 책



웹툰과 영화 '신과 함께'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흥행했다. 그 기반에는 한국불교의 사후세계가 있었다. K-판타지 근원인 '불교 사후세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영문 책자가 발간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는 "한국불교의 사후세계를 소개한 외국어 책자 〈The Dark Courts- Buddhist Underworld and its Kings〉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집필은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 〈사찰 속 숨은 조연들〉의 저자 노승대 작가가 맡았으며, 번역은 불교 전문 통·번역가 홍희연 씨가 맡았다.

이 책은 해외에 한국불교가 담고 있는 유무형의 사후 세계관을 소개하고자 기획했으며, 영문과 국문을 함께 실어 내국인과 외국인 독자가 모두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종단협은 "고대 인도로부터 전해오면서 서역, 중국을 거쳐 한국의 문화로 토착화한 독특한 사후세계에 대한 문화를 영어로 소개한 단행본은 현재까지는 없어 이 책의 발간에 의미는 크다"고 평가혀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존상, 불화, 불구는 물론 해외 박물관 소재의 문화유산 등 다양한 도판을 활용해 독자들의 이해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